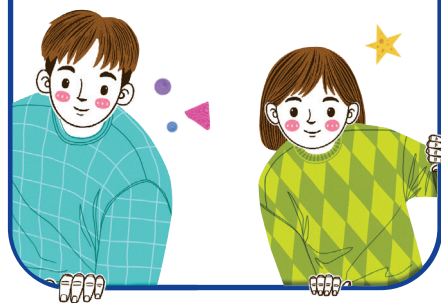


고등학교

문학



머리말



현장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네 명의 교사와 문학 교육을 전공하는 네 명의 교수가 문학 교과서의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와 현실에서 출발하되 미래와 이상을 추구하는 교과서, 교실 속 수업과 입시에 도움을 주는 도구이자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교실 밖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실제 삶에 기여하는 교과서, 지식의 이해를 넘어 문학의 세계를 스스로 감상하고 상상하며 그 깨달음을 다른 세계에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교과서,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저장해 두었다가 내던져 버려지는 문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고 오래 사랑할 수 있도록 문학을 전해 주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자 우리 저자들은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토론하며 수많은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대·갈래·주제·매체 등의 균형 있는 안배, 정전과 새로운 작품의 적절한 조화, 성·인종·환경·생태 등 범교과적 목표에 관한 충실한 고려,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다각적인 고민을 거쳐 검증된 작품들을 제재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문학의 특정 갈래와 영역을 뛰어넘는 통합적 구성은 물론,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여 다른 매체 및 문화 예술을 넘나드는 융·복합적 구성을 구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과 흥미에 걸맞은 학습 활동을 구안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장치와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지은이 모두의 마음을 담아 씀

구성과 특징



1 대단원 도입



- 단원명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 단원을 통해 익혀야 할 핵심 역량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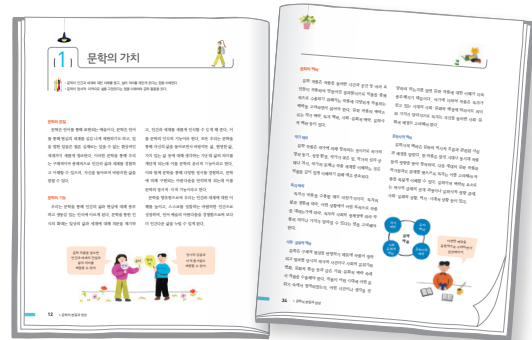
2 단원의 길잡이



-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단원의 성격과 학습 방향을 이해 합니다.
- 단원을 통해 익혀야 할 학습 목표를 점검합니다.
- 단원에서 배울 요소와 작품을 살펴봅니다.
- 단원의 학습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봅니다.



3 소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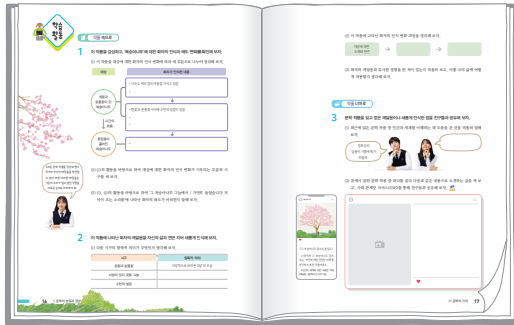
- 소단원을 통해 익혀야 할 학습 목표를 점검합니다.
- 학습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필수적인 문학 이론을 이해 합니다.

4 작품 학습



- 소단원의 학습 목표에 적합하고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합니다.
- 도입 삽화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 본문을 읽기 전 동기 유발 질문과 읽기 중 활동 질문에 답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작품을 감상합니다.
- 작품 감상을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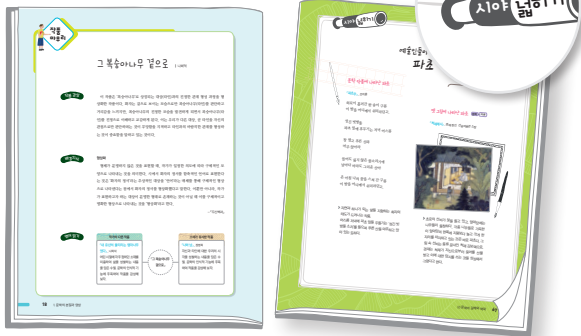
5 학습 활동



단계적으로 구성된 활동을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학의 역량을 키웁니다.

- 1 **작품 속으로** | 본문의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 봅니다.
- 2 **작품 너머로** | 학습한 작품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을 감상하거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써 문학 경험을 확장해 봅니다.

6 작품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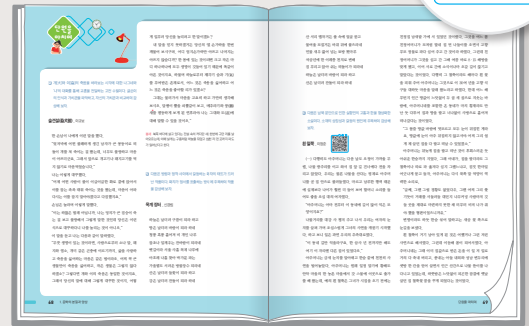
'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 학습을 정리하고, '배경지식'과 '읽어 읽기'를 통해 작품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시야 넓히기'를 통해 영역 간 통합 학습을 해 봅니다.

- 1 **작품 감상** | 작품 감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2 **배경지식** | 작품을 넓고 깊게 감상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획득합니다.
- 3 **읽어 읽기** | 작품과 관련 있는 다른 작품을 연계하여 감상함으로써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 봅니다.



QR 코드로 쉽게 작가 소개 영상, 관련 영상, 작품 전문, 관련 누리집 등을 활용해요.

7 단원을 마치며



- '읽어 읽기'에 제시된 작품의 일부 지문을 학습 포인트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배우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여 봅니다.

8 창의 활동



-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넓혀 봅니다.
- 학습자의 삶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사회와 맞닿아 있는 여러 문제들과 연결 지어 문학 활동을 해 봅니다.
- 다양한 문학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경험해 봅니다.

이 책의 차례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13
작품 2	성난 풀잎 이문구	19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 성석제	25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	길 김소월	35
작품 2	엄마의 말뚝 2 박완서	41
작품 3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51
작품 4	파초 이태준	61

단원을 마치며+

슬건설(이규보) / 목계 장터(신경림) / 흰 철쭉(이청준) / 차마설(이곡)	68
---	----

창의 활동 도전! 우리끼리 성장 소설 함께 읽기	72
-----------------------------------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1	속미인곡 정철	79
작품 2	천변 풍경 박태원	87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1	즐거운 편지 황동규	101
작품 2	엇박자 D 김중혁	107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 · 창작

작품 1	남한산성 김훈 원작 / 황동혁 각본	117
작품 2	홍보가 작자 미상	127

단원을 마치며+

고백 - 편지 6(고정희) / 시 읽기의 네 갈래 길 - 백석의 「옛새 소리」(정끝 별) / 남한산성(김훈) / 홍부 부부상(박재삼)	140
---	-----

창의 활동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과 공감의 문학과 인접 영역들	144
--	-----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1] 서정 갈래

작품 1	찬기파랑가 총담사 / 김완진 해독	155
작품 2	정석가 작자 미상	161
작품 3	어부사시사 윤선도	167
작품 4	참회록 윤동주	173
작품 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179

[2] 서사 갈래

작품 1	주몽 신화 작자 미상 / 일연 편	189
작품 2	이생규장전 김시습	197
작품 3	태평천하 채만식	207
작품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217

[3] 극 갈래

작품 1	통영 오광대 작자 미상	227
작품 2	원고지 이근삼	237

[4] 교술 갈래

작품 1	주옹설 권근	251
작품 2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김연수	257

단원을 마치며+

구지가(작자 미상) / 한림별곡(한림 제유) / 상치쌈(조운) / 율포의 기억 (문정희) / 삼포 가는 길(황석영) / 적벽가(작자 미상)	264
--	-----

창의 활동 도전! 감상왕 - 세계의 고전 편	268
---------------------------------	-----

4 문학과 삶

[1] 자아·타자·공동체와 문학

작품 1	수오재기 정약용	275
작품 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281
작품 3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이문재	293

[2] 문학의 생활화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문학을 나눕니다	300
• 감동 나누기 _ 가 보지 못한 길 프로스트	
• 생각 나누기 _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김초엽	
• 창작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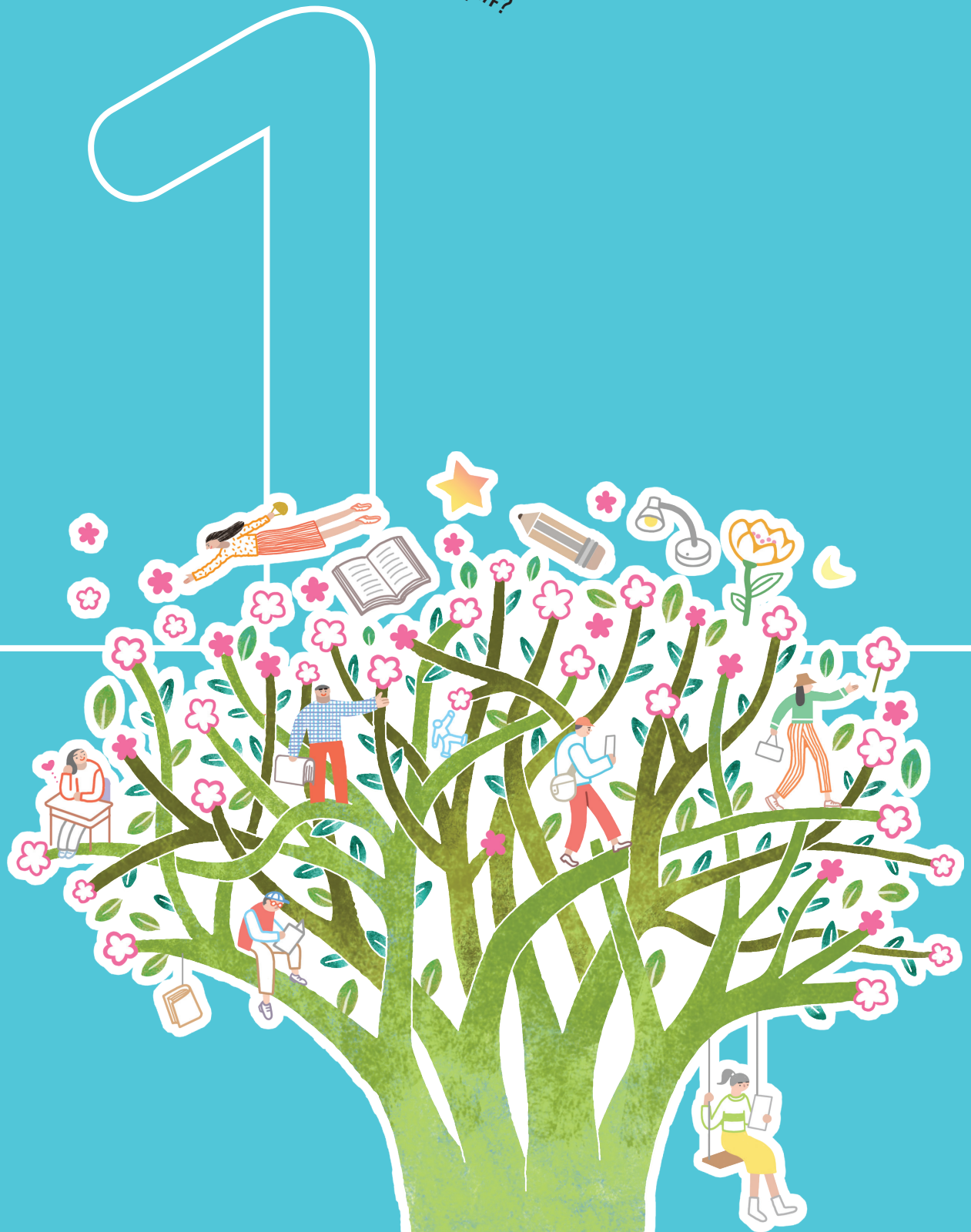
단원을 마치며+

우리에겐 일 년 누군가에겐 칠 년(이기호) /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박 남수)	308
--	-----

창의 활동 문학관 건립 제안서 만들기	310
-----------------------------	-----



문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학의 갈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비판적
· 창의적
사고

문화
향유

자기 성장
· 계발

공동체
· 대인 관계

디지털
· 미디어

의사
소통

1

[핵심 질문]

문학이란 무엇일까?

문학의 본질과 양상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 철학, 윤리학 같은 인문적 성격이 있다.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문학은 풍요롭다. 성격만이 아니라 양상 또한 풍요롭다.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 등 다양한 갈래로 우리 인생 속의 '진, 선, 미'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풍요로운 문학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상상력, 인성과 윤리 의식을 길러 보도록 하자.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을/를 배우고 싶습니다.



[1] 문학의 가치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작품 2 성난 풀잎 | 이문구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 | 성석제



학습 목표

-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 길 | 김소월

작품 2 엄마의 말뚝 2 | 박완서

작품 3 우리들의 블루스 | 노회경

작품 4 파초 | 이태준

[1]

문학의 가치



-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의 본질

문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현실의 세계를 실감 나게 재현하기도 하고, 있을 법한 일들은 물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까지 새롭게 창조한다. 이러한 문학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의 삶과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바람직한 삶을 꿈꿀 수 있다.

고,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 한다. 또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삶, 현명한 삶, 가치 있는 삶 등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문학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문학에 의해 구현되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라고 한다.

문학의 기능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과 현실에 대해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문학을 통한 인식의 확대는 일상의 삶과 세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고,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 한다. 또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삶, 현명한 삶, 가치 있는 삶 등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문학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문학에 의해 구현되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를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인간과 세계의 진실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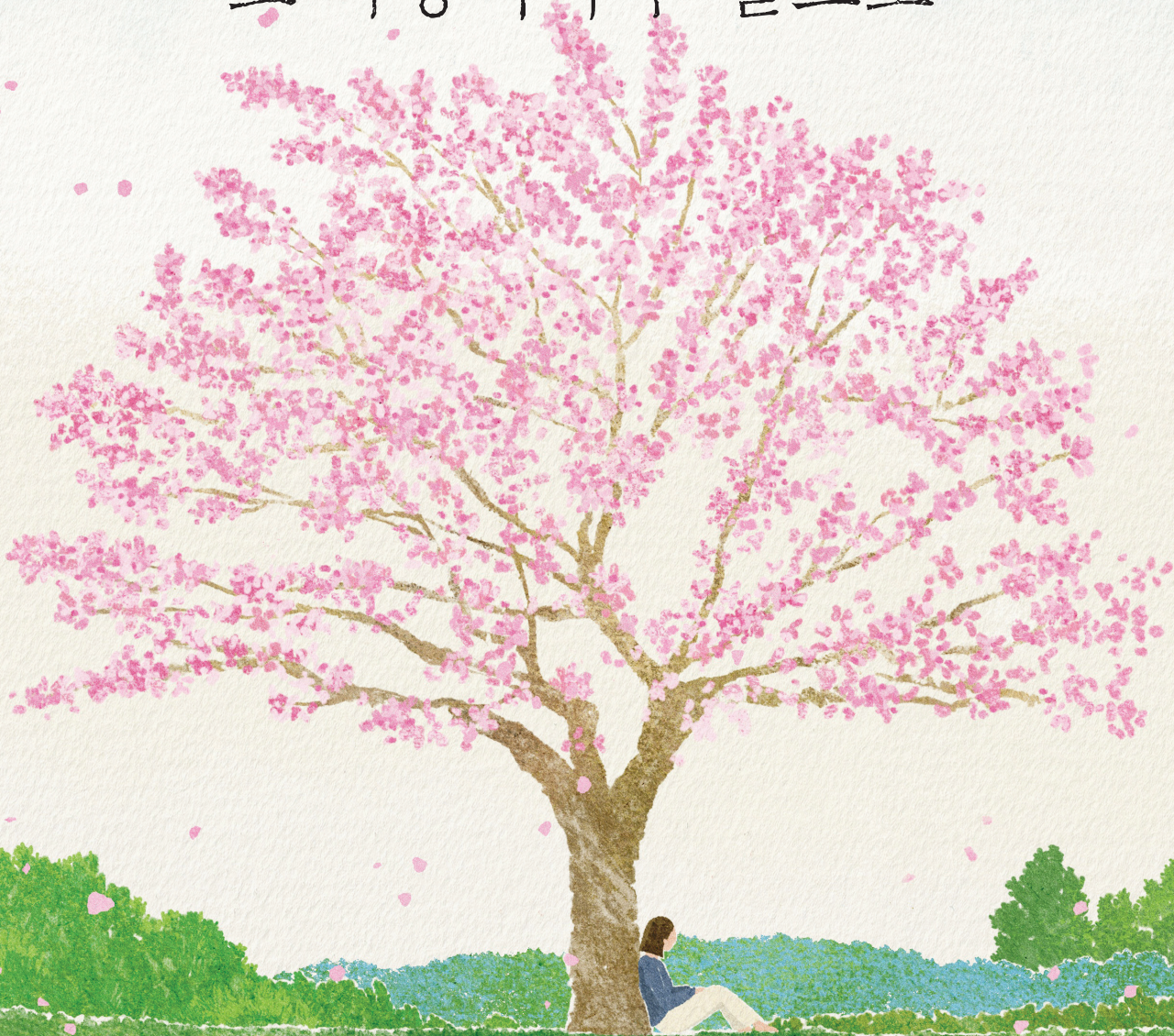
윤리

정서,
미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도
체험할 수 있어.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가 소개

나희덕(1966~) 시인.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서정적인 작품을 쓰고 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어두워진다는 것』,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이 있다.



-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의 삶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적이 있나요?
-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한 시이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와 깨달음을 파악하고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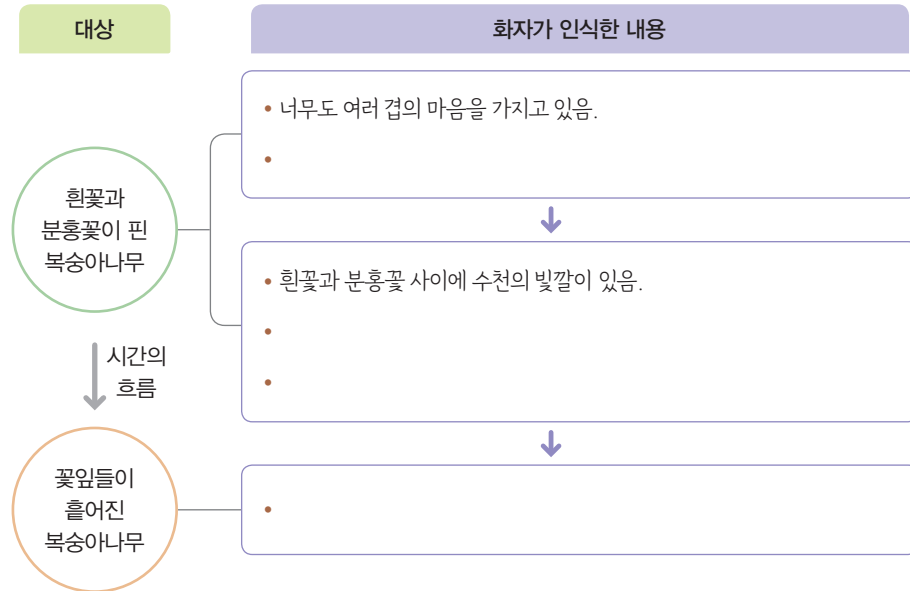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자.

(1) 이 작품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인식적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어.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의 시구를 써 보자.

(3)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 녀이 오는 소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깨달음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새롭게 인식해 보자.

(1) 다음 시구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수천의 빛깔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자.



(3) 화자의 깨달음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고, 이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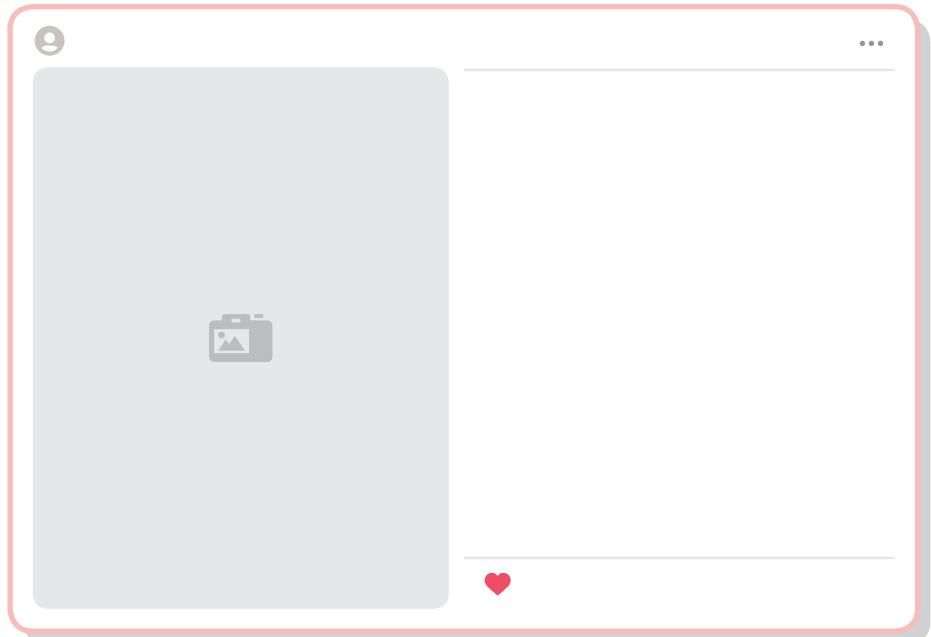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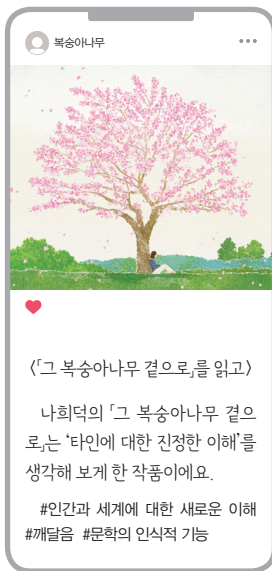
작품 너머로

3 문학 작품을 읽고 얻은 깨달음이나 새롭게 인식한 점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1) 최근에 읽은 문학 작품 중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떠올려 말해 보자.



(2) 위에서 말한 문학 작품 중 하나를 골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는 글을 써 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희덕

작품 감상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로 상징되는 대상(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복숭아나무를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끼지만,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다른 대상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상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지식

형상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작가가 일정한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했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때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 『두산백과』

읽어 읽기

작가의 다른 작품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나희덕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하던 소재를 이용하여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소재가 유사한 작품

『나와 남』 장영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성난 풀밭



작가 소개

이문구(1941~2003) 소설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을 충청도 지역어를 풍부하게 활용한 문체로 그려 낸 작품을 많이 남겼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연작 소설인 『관촌수필』, 『우리 동네』, 단편 소설인 「추야장」, 「장곡리 고욤나무」 등이 있다.



-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 자연물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은 풀독이 오른 경험을 소재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한 수필이다. 자연에 대한 글쓰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성난 풀잎 | 이문구

때치거나 어떤 생각이나 정(情) 따
위를 딱 끊어 버리거나.
생이 새뱅잇과의 민물 새우.
모르쇠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
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天地不仁]는 말이 있다. 온갖 생물을 낳
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때치거나 하지 05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
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 10
가의 오막살이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 글쓰이가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
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물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
물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
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15

💡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
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05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별칭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몸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

10 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의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흥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15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달포나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집터서리 집의 바깥 언저리.

올안 올타리를 둘러친 안.

풀독 풀의 독기.

옴 옴진드기가 기생하여 일으키는 전염 피부병.

직방 어떤 결과나 효과가 지체 없이 곧바로 나타나는 일.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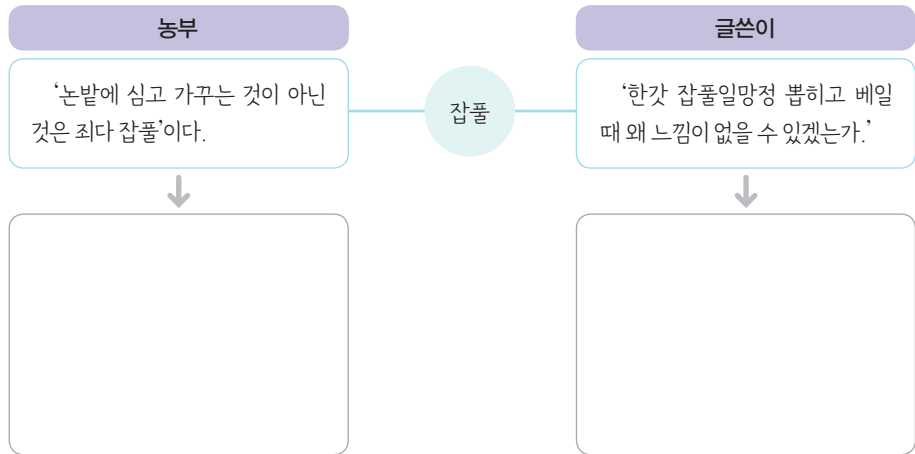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내용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



2 글쓴이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탐구해 보자.

(1)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해 보자.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윤리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어.



(2) 글쓴이가 풀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해 보자.

(3) 글쓴이가 이 작품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보고, 제목인 ‘성난 풀잎’의 의미가 무엇인
지 말해 보자.

(4) 이 작품을 읽은 후의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

3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관련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함민복, 「그 샘」

시인의 고향에 있었던 샘을 소재로 한 시이다. 한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나누어 먹었던 경험을 통해 이웃간의 배려와 훈훈한 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파리 집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짚이나 천을 틀어서 만듦.

삼작 '사립문'의 방언.

미나리깡 미나리를 심는 논. 땅이 걸고 물이 많이 과는 곳이 좋음.

양금 녹말 따위의 아주 잘고 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생긴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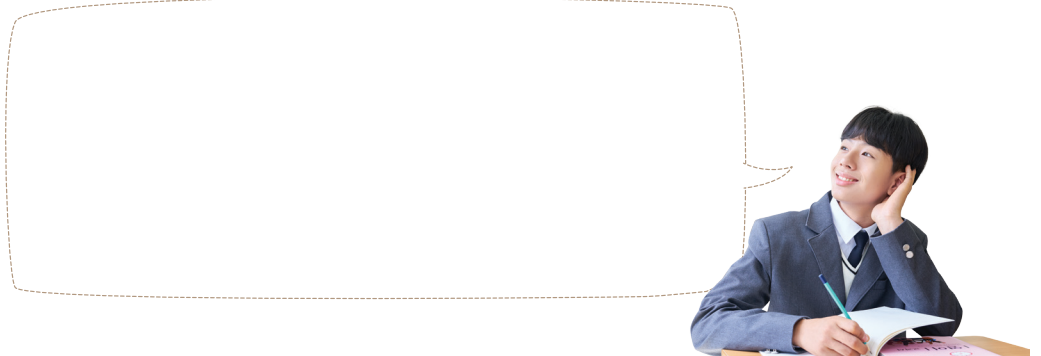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파리[●] 끈 입에 물고 삼작[●] 들어 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깡[●]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양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 내[●] 혹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1) 위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주제 의식을 파악해 보자.



- (2) 위 작품이 갖는 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습을 성찰해 보고, 위 작품을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말해 보자.





작품 마무리

성난 풀잎 | 이문구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자연의 본성에 관한 옛사람의 인식과 풀독이 올라 고생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담아낸 수필이다. 인간의 쓸모에 따라 '잡풀'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들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배경지식



노자『도덕경』 5장의 '천지불인(天地不仁)' 문학 + 윤리

'천지불인'이라는 말은 "천지는 사사로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라는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천지, 곧 자연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데서 어진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행할 뿐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천지자연의 근본적인 운행 원리인 도(道)가 실현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무심히 일어나는 일[무위(無爲)]이고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일[자연(自然)]이라는 무위자연 사상과 연결된다.

읽어 읽기

작가의 다른 작품

『우리 동네 황 씨』. 이문구
근대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 의식의 상실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은 소설. 농촌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성난 풀잎」

주제가 유사한 작품

『술건설』. 이규보
개[犬]와 이[蠹]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손[客]과 '나'의 대화를 통해, 생명이 있는 것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수필. 글의 주제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단원을 마치며 68쪽

다음에, 나머지 반도



작가 소개

성석제(1960~) 소설가. 삶의 애환을 기지와 해학으로 그려 낸 작품을 많이 썼다. 소설집으로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장편 소설로는 『투명 인간』, 『왕은 안녕하시다』 등이 있다.



- 슬픈 사연을 담고 있으면서도 웃음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 '나'와 닮아 공감한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은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의 오일장을 돌며 장사를 하는 김 주사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콩트이다. '김 주사'라는 인물을 탐구하고,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와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다음에, 나머지 반도 | 성석제

 꾸무럭대다 구석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한 김 주사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

그날은 아침부터 손님이 많지 않았다. 오일장을 돌며 장사를 하려면 여간 눈치가 빨라야 하는 게 아니었다. 아침에 어떤 목을 차지하느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자리를 잡고 앉느냐에 따라 그날 매상이 좌우되는 법인데 김 주사는 추위로 굳은 몸을 편답시고 꾸무럭대다 찬 바람이 송곳처럼 찢러 대는 구석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05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스피커로 “물 좋은 고등어 삼치요, 눈을 꿈뻑꿈뻑 하는 오징어가 왔어요!” 하고 외쳐 대며 손님을 끄는 30대 이동수 같은 치들이 좋은 자리를 재빨리 선점하고는 점심 무렵에 이미 하루 장사를 거진 다 해 버리는 것을 눈 뜨고 보아야 하니 심사가 좋을 리 없었다. 10

 '이동수'에 대한 김 주사의 태도는 어떠한가?

바로 그 이동수가 김 주사에게 점심때 “할배요, 오늘 장사가 영 파리만 날리는 게 시원찮은갑네요. 우동으로 점심 때올라카는데 같이 드실랍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네 증조할부지 보고 와서 장사를 해 보래라. 요새 같은 불경기에 밥그릇에 숟가락 걸치기가 그리 쉬운가.” 하고 되쏘고야 말았다. 15

원래 김 주사는 시골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고무줄이나 이쑤시개, 빨래집게, 비눗갑 등등의 가볍고 작은, 값싼 일상용품 수십 종을 늘어놓고 팔며 수십 년 동안 근근이 입에 풀칠을 해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장에 수천 대의 승용차를 집어삼키는 대형 할인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물,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김 주사의 라이벌이 되어 갔다. 비록 썩지 않는 물건이라고는 하나 팔리지 않으면 종내 현것처럼 보이게 마련이고 그러면 떨이를 하여도 본전을 못 챙기기가 일쑤였다. 20

목 자리가 좋아 장사가 잘되는 곳이나 길 따위.
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심사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종내 끝에 가서 드디어.

당장 때려쳐야지, 하는 말을 장날마다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한 건 자신도 잘

모를 일이었다. 아니다. 나고 자란 읍내에서 장날이 되면 목청 높여 손님을 부르는 장사치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축제나 불꽃놀이를 구경할 때처럼 가슴이 뛰었던 기억 때문이라도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또 오랜 세월 그의 물건만을 사러 와 주는 단골들 때문이라도.

05 그가 장돌림으로 반평생을 보내며 늙었듯이 그가 돌아다니는 시골 장날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것처럼 나이를 먹었다. 사 가는 물건이래야 예전의 라이터들, 장독 고무줄 같은 것에서 파리채, 가위, 손톱깎이 등속으로 바뀌었으되 값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인 것이었다. 그런 것들이 별달리 고장 날



10 일도 없건만 아침 일찍부터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와 앉았다가 대단찮은 고장을 고쳐 달라고 할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보지 않으면 그새 무슨 일이라도 있나, 혹 앓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쉽게 화내지 않고 웃지 않고 울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람들, 기껏 소리 없는 웃음이 귀까지 병싯 걸리는 것이 고작인 사람들에게 김 주사는 자신도 모르는 새 정이 들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 김 주사가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가 큰마음을 먹고 장사 물품을 대폭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이가 고희에 접어든 여섯 달 전이었다. 장날에 일 없이도 나오던 단골들이 언젠가부터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나이가 들었으니 기운이 딸리거나 노환으로 구들장 신세를 지고 있을 터, 혹은 이미 사는 세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 댔는지도

💡 김 주사가 장사의 품목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 몇 번의 오일장에 김 주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결국 마지막으로 망하든 말든 사내답게 한번 사업을 벌여 보리라 했다. 그게 우주 탐사를 떠나는 것 같은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인건비 낮은 나라에서 생산한 값싼 옷가지며 신발을 무게로 달아서 파는 데 걸다리로 꺾들었던 것뿐이었다.

25 캄보디아나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같은 곳에는 대도시 대형 의류 판매점에 옷가지 등속을 생산 공급하는 하청 회사가 있었다. 값싼 원가 위주로 생산한 물품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고 또 언제나 수요 공급을 딱 맞출 수도 없어서 어찌다 싼값에 걸은 멸절한 옷가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30 그런 싸구려 의류를 장바닥에 풀어먹임으로써 삼시간에 한몫 챙겨 가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던 끝에 큰마음 먹고 그도 거기에 뛰어든 것이었다. 간이 콩알만

장돌림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

등속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르는 말.

병싯 입을 조금 크게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고 부드럽게 슬쩍 한 번 웃는 모양.

고희(古稀) 70세, 또는 70세에 이른 것을 축하하는 의례.

하청(下請)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요량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파장 과장(科場), 백일장, 시장(市場) 따위가 끝남. 또는 그런 때.
논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

한 김 주사는 자신이 가진 돈의 절반을 부어서 수백 장의 셔츠와 바지를 샀고 계절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팔아넘길 요량이었다.

그는 오후 3시부터 긴팔 셔츠 한 개에 만 원 하던 것을 3개에 2만 원으로 바꿨다. 땅거미가 짙어 오고 파장이 가까워 오면서 초조해진 나머지 또 값을 낮춰 “티셔츠가 두 장에 만 원, 만 원.” 하고 잘 맞지도 않는 박자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외쳐 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김 주사를 낯설게, 또는 우습게 보기만 할 뿐 도대체 옷을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늦게 장에 나온 사람들은 떨이 채소 등속을 싸게 사려는 사람뿐이었다.

05

그러던 중 김 주사의 눈에 아까부터 몇 번째 그의 주변을 맴도는 40대 후반의 사내가 보였다. 사내는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안에 입은 셔츠는 험령하고 얇은 와이셔츠였고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10

하지만 그는 김 주사가 조금 더 값을 낮춰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주사는 오기가 나서 장사를 끝낸 트럭들이 시동을 걸고 떠날 때까지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 식으로 허기가 질 지경이 되었다. 마침내 사내가 김 주사에게 다가왔다.

15

💡 김 주사와 40대 사내와의 실랑이가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보소, 아재요. 거 티셔츠가 한 개에 올맨교?”

“한 개는 절대로 안 팝니다이. 두 개에 만 원, 만 원.”

김 주사의 어투는 자동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투리로 바뀌었다.

“에이 그카지 말고 한 개만 파소, 사람이 몸뚱아리가 한 갠데 우예 두 개를 한꺼분에 입는다고 그카는교.”

20

“그래는 몬하지. 그래마 혼자 남은 티셔츠가 외로와 외로워서 못 살제. 두 개 같이 가져가이소, 요 일따라 기분따라 색깔을 바까가미 입으시마 좋지.”

25

그들의 팽팽한 논전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아니었다. 결국 장사에서는 시간을 등에 업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김 주사는 이를 빼득 갈며 비닐봉지에 티셔츠 하나를 담아

30



서 사내에게 건넸다. 사내는 곧 닳아 없어져 버릴 듯 나달거리는 오천 원짜리 한 장을 김 주사에게 건넨 뒤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김 주사는 그의 등쪽에 대고 “그 옷, 그거 담 장날 가지고 와도 반, 반, 반...” 하는데 뒤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반품 없다’는 말 대신 반토막, 반쪽, 반
05 대, 반사, 반딧불 같은 단어가 초파리처럼 달려드는 바람에 머리를 흔들던 김 주사는 마침내 결정했다.

“담 장날에 돈 마이 벌어 와서 나머지 반동가리도 꼭 사 가이소, 어이?”

사내는 몸을 반쯤 돌린 채 서 있다 어리둥절한 듯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다.

10 “그럼 또 보입시더!”

“잘 가소!”

인사를 마친 그들은 각자 가려던 방향으로 천천히 흩어져 갔다.

💡 “담 장날에 돈 마이 벌어 와서 나머지 반동가리도 꼭 사 가이소, 어이?”가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작품 속으로

1

김 주사의 상황과 처지를 정리해 보고, 김 주사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자.

상황과 처지

- 시골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김 주사는 대형 할인점 등에 밀리는 처지임.
- 어릴 적 느꼈던 장날의 설렘, 사람들과의 ()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지 못함.
- 단골들도 장터에 잘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한번 큰 사업을 벌여 보리라 작정하고 ()을/를 판매하기로 함.
- 두 장에 만 원 하는 티셔츠를 한 장만 사 가려는 40대 사내와 ()을/를 벌이다가 결국 내어줌.



성격

- 변화하는 시대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함.
-
-
-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을 탐구해 보자.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표현해 놓은 미적 가치를 통해 감동과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과 심미적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정서적·미적 체험이라고 해.



해학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태도, 동작, 표정, 말씨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동정과 이해, 긍정적 시선을 전제로 하므로, 풍자나 조롱, 비아냥과는 달리 품위가 있으며 선의의 웃음을 유발한다.

- (1) 이 작품에서 해학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고, 작가가 이와 같은 장면을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독자의 입장에서 말해 보자.
- (2) 지금까지 읽은 문학 작품에 등장한 인상적인 인물들을 떠올려 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인물을 접한 경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말해 보자.
- (3)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다음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허 생원, 조 선달, 동이 등 장돌뱅이들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애욕과 혈육의정이 지나는 자연성과 신비성을 향토색 짙은 메밀꽃의 정경 속에서 그리고 있다.

가제 이제 막.

대궁 '대궁'의 방언. 식물의 줄기.

확적히는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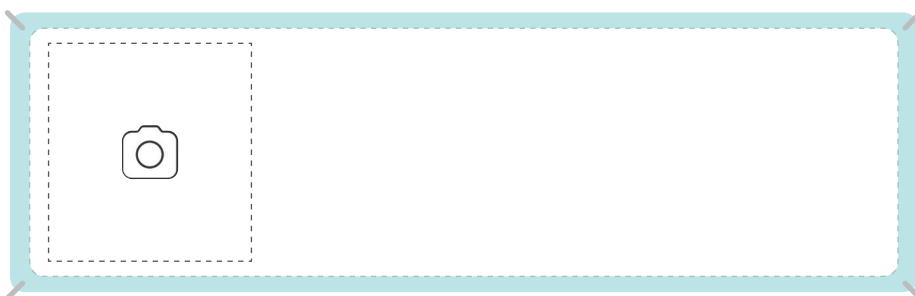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 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았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째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1) 위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휴대 전화 속 사진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찍은 사진을 고르고, 그곳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를 정서적·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글로 써 보자.





다음에, 나머지 반도 | 성석제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사회 변화의 물결에 떠밀려 사라져 가는 오일장을 떠돌면서 싸구려 물건을 파는 '김 주사'의 삶을 보여 주는 콩트이다. 김 주사는 단골손님과 인연과 정을 소중히 여기는 면모, 싸구려 물건으로 돈을 벌겠다는 속물적인 면모, 반품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 엉뚱한 말을 하는 어리숙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도시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떠밀린 인물의 삶의 모습과 감정을 잘 보여 준다. 특히, 김 주사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엉뚱한 말을 꺼내는 장면에서는 익살스러움과 해학을 느낄 수 있다.

배경지식

콩트(contte)

단편 소설보다 훨씬 더 분량이 짧은 소설이다. 짧은 분량이라는 특성을 나뭇잎에 빗대어 '엽편 소설(葉篇小說)'이라고도 하고, 손바닥에 빗대어 '장편 소설(掌篇小說)'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장편 소설(長篇小說)'과 혼동되기 쉬워서 '손바닥 소설'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인생의 단면을 유머, 풍자, 기지를 섞어 그려 내는 데 유효하다.

읽어 읽기

작가의 다른 작품

『처삼촌 묘 벌초하기』_ 성석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라는 속담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으로, 처가의 선산 벌초를 둘러싼 인물의 심리를 그린 콩트. 콩트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다음에,
나머지 반도」

관련 있는 소재의 작품

『노새 두 마리』_ 최일남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의 고달픈 삶을 그린 소설. 소재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 2 }

문학의 갈래와 맥락



-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탐구하는 문학 활동을 한다.
-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는 일반적으로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사건이나 체험을 전달하는 네 가지 방식인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 주기’, ‘알려 주기’에 의한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서정 갈래,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사 갈래,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극 갈래, 어떤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는 것은 교술 갈래이다.

서정 갈래는 주로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시(詩)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서정 갈래는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반응과 정서를 담아낸다. 또한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이에 비해 교술 갈래는 실제 경험한 일에서 느낀 감정과 교훈을 드러내거나, 외부 대상을 그대로 작품에 가져와 사실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오늘날 문학 가운데 수필이 대표적이다.

서사 갈래와 극 갈래는 모두 세계와 대결하거나 갈등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반면, 극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서사 갈래에서 이야기의 구성은 서술자의 시점에 따라 재구성되며, 사건과 갈등이 중심축이 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서사 갈래 유형은 소설이다. 극 갈래는 주로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독자 또는 관객에게 이야기를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극 갈래 유형은 희곡이다.



서정



서사



극



교술



파초 | 이태준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가치관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서술한 수필이다. 정성을 다해 기른 파초가 마당 앞에 만들어 준 남국의 풍정을 보며 파초 앞에 통기는 빗소리를 즐기는 데서 글쓴이의 문인적 풍류를 느낄 수 있다(전반부). 한편으로 파초를 통해 얻은 가치를 돈과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사물의 가치를 남다르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글쓴이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후반부).

배경지식

이태준의 수필관

필자의 면목이 첫 마디부터 드러나는 글이 이 수필이다. 그 사람의 자연관, 인생관, 그 사람의 습성, 취미, 그 사람의 지식과 이상, 이런 모든 ‘그 사람의 것’이 직접 재료가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수필은 자기의 심적 나체다. 그러니까 수필을 쓰려면 먼저 ‘자기의 풍부’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미(美)’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태준, 『문장강화 외』

읽어 읽기

작가의 다른 작품

『달밤』_ 이태준

각박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한 못난이의 삶에 대한 연민을 담은 소설. 작품에 나타난 서정성과 간결하고 치밀한 문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파초」

주제가 유사한 작품

『차마설』_ 이곡

말을 빌려 탄 경험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그릇된 소유욕을 비판한 고전 수필.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단원을 마치며 70쪽

예술인들이 사랑한 파초



문학 작품에 나타난 파초

「파초우」. 조지훈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 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
어스름 저녁에 파초 앞을 두들기는 '성긴 빗
방울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을 마주하고 앉
아 있는 듯하다.

옛 그림에 나타난 파초 문학 + 미술

「척재제시」. 겸재 정선. 간송미술관 소장



▶ 초로의 선비가 붓을 들고 있고, 앞마당에는
나무들이 울창하다. 각종 나무들로 가득한
이 앞마당의 한쪽에 지붕보다 높고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파초다. 그
림 속 선비는 풍류 문사인 척재 김보택으로,
겸재는 척재가 자신으로부터 용어를 선물
받고 이에 대한 답시를 쓰는 것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한다.



① 개[犬]와 이[蠡]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나그네와 '나'의 대화를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이다. 글쓰이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슬견설(蝨犬說) _ 이규보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옛저녁에 어떤 불쾌하게 생긴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손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오.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

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어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기 숨과 기(氣)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쇠뿔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봉(鵬)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라야 나는 그대와 도(道)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봉새 북쪽 바다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커다란 새. 한번에 구만 리를 날아오르는데, 이때 날개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삼천 리 먼 곳까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한다.

② 다음은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화자가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목계 장터 _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 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③ 다음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고통과 한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소재의 상징성과 갈등의 원인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흰 철쭉 _ 이청준



(…)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다음 날도 오정이 가까울 무렵, 나물 광주리를 이고 와서 집 앞 길 건너에다 전을 차리고 앉았다. 우리는 물론 나물을 산다는 핑계로 아주머니를 곧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마르고 남루한 행색 때문에 실제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여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좋을 오십 대의 여자였다.

“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물거리를 대강 사 챙겨 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피 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이 동네 길만 익을라구요.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오.”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한테 어느 해부터인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떠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몹쓸 땅값 바람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랍니다.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파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짐짓 한마디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 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때 그릴 경향도 없었다우. 그때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껴 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유.”

변명이라도 하듯 한숨 쉬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 있게 된 것은 어쨌거나 그런 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 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꿈에서도 그토록 꽃빛이 희고 탐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집터도 물론 내가 살아오던 옛날 집이었구……. 꿈을 깨고 나니 꽃이 필 철이더구만유. 그래 아무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 나물 장살 핑계 삼아 꽃을 보러 왔었지유. 찾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담 너머로 꽃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사 들어오고 나서 바로 다음 해부터의 일인 셈이었다. 첫해에는 아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가 아주머니가 아예 집 앞 길거리에서 전 자리를 펴고 앉은 그해에 와서야 분명한 기미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나물 바구니를 이고 와서 하루 종일 담 위의 꽃을 보다 가곤 한 것이었다. 꽃이 시들어 떨어질 때까지 내리 3년을 계속해 온 일이었다.

그해에도 아주머니는 마찬가지로였다. 그해에도 그녀는 5월로 접어들며 몇 번씩이나 철쭉 꿈을 꾸었고 그만큼 혼자서 개화를 기다려 왔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집 앞을 찾아와 담 위로 흰 꽃이 흐드러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것이었다.

“남의 집에서라도 꽃이 저렇게 잘 피어 주어 그토록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다우. 일 년 내 혼자 조여 온 마음이 한꺼번에 풀린 듯 안심이 되더라구요.”

아주머니는 그쯤에서 대강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들에 대한 치하의 말과 함께 그만 자리를 일어섰다.

우리는 이제 그 아주머니를 보고도 서로 간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공연히 애뜻하고 무거운 기분에, 가져선 안 될 것을 빼앗아 가진 사람처럼 아주머니에게 자꾸 송구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래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대며 허겁지겁 일어서는 아주머니를 다시 붙들어 앉혔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철쭉을 옮겨다 심으라고, 그래 두고 해마다 집에서 맘껏 꽃을 보도록 하라고 인정 어린 제의를 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건 물론 실현성이 없는 소리였다. 아주머니네

는 이제 나무를 옮겨 가 심을 집이 없었다. 그런 일을 치를 만한 힘도 없었다. 아니, 그보다 아주머니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일이었다. 아주머니는 차마 그녀의 본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철쭉으로 고향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만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행여 이남으로 넘어와 어디에 살아 있다면 그 어머니는 철쭉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라면 다른 친척이나 고향 사람이라도 당부를 가지고 넘어와 있을 수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지만, 짐을 옮겨 간 뒤에라도 누가 행여 철쭉의 기억을 찾아 나타날지 몰랐다. 철쭉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가 없었다. 그때의 사정이 정말이었거나 말거나, 아주머니의 기다림이 지쳐 망단을 했거나 말거나, 나무를 옮겨 가지 못할 진짜 사연은 그 때문이었다.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뜻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든 안 했든 그녀는 그 때문에 나무를 옮겨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④ 다음은 말을 빌려 탄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하여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자세를 제시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의 삶의 자세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차마설(借馬說) - 이곡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더러 남의 말을 빌려서 탄다. 그런데 아둔하고 여윈 말을 빌리면, 비록 일이 급해도 감히 채찍을 가할 수 없고, 항상 쓰러질까 조심하

며, 개천이나 구렁을 만났을 때는 곧 내리므로 아직은 뉘우친 일이 없다. 그러나 굽이 높고 귀가 날카로우며 몸이 날쌔 놈을 빌리면, 흡족하여 마음대로 채찍을 가하고 바빠 고삐를 당기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는지라 심히 통쾌하기는 하나, 낙마(落馬)의 위험은 면치 못한다.

아, 사람의 마음의 율기고 바뀔이 어찌 한결같이 이리한가? 남의 것을 빌려 하루아침의 소용에 대비하는 데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하물며 참 자기 소유의 것임에랴.

그러나 사람이 소유한 바 그 어느 것이 남에게서 빌린 게 아니겠는가? 군왕(君王)은 백성에게 힘을 빌려 높이 되고, 신하(臣下)는 군왕에게 권세를 빌려 귀히 되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비복(婢僕)은 주인에게, 그 빌리는 바가 많으나 그것을 모두 제 소유로 생각하고 끝내 반성하지 않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잠깐 사이에 그 빌린 바를 되돌려주게 되면, 만방(萬邦)의 군왕도 필부(匹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집안도 고신(孤臣)이 되니, 하물며 하찮은 백성임에랴?

일찍이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 빌려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제 소유가 아닌 줄을 알겠는가?”

했다. 내 이에 느낀 바 있어 「차마설(借馬說)」을 지어 그 뜻을 넓혀 본다.

차마설 말을 빌려 타는 일에 관한 이야기.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필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

백승의 집안 '백승(百乘)'은 '백 대의 수레'라는 뜻으로, '백승의 집안'은 수레 백 대를 갖출 수 있는 가문, 즉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진 집안을 의미함.

고신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



스스로 점검하기



[1] 문학의 가치

평가기준	평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성난 풀잎」, 「다음에, 나머지 반도」를 통해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였다.	☺☺☺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평가기준	평가
「길」, 「엄마의 말뚝 2」, 「우리들의 블루스」, 「파초」를 통해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탐구하는 한편, 문학의 주요 맥락인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

스스로 나아가기



나는 이 단원을 학습하고 나니, _____
 _____을/를 더 배우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_____
 _____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 우리끼리 성장 소설 함께 읽기



황영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우리'에 속하기 위해 진짜 나를 감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신을 옥죄는 굴레를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다현이의 이야기.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고 있다.



책을 골라요.



손원평

아몬드

'아몬드'라고 불리는 편도체 이상으로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린 17세 소년 윤재. 윤재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비극적 사고를 당할 때도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지만 깊이 있는 독서와 주변 어른들의 조언, 그리고 문제아로 낙인찍혔던 친구와 소통하면서 서서히 감정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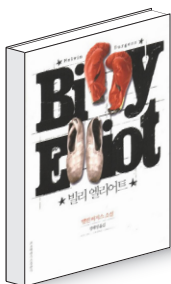
이희영

페인트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 주는 양육 공동체를 설립하는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이 부모를 직접 면접을 보고 선택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좋은 부모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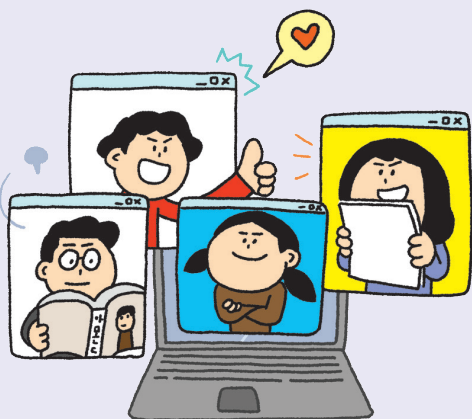
책을 읽어요.



멜빈 버지스

빌리 엘리어트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이 격렬하게 진행되던 1984년 영국,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광산 노동자인 아버지, 형과 함께 사는 소년 빌리가 주인공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지만 어쩐지 발레의 매력에 빠진다.



이야기를 나누요.



좋았던 문장을 3개씩 발췌해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각자 성장 소설로 소개된 도서 중 한 권을 고릅니다.
2. 같은 책을 고른 사람끼리 모여 책을 읽습니다.
3. 각자 책을 읽으며 좋았던 문장을 3개씩 발췌하고, 그 까닭을 노트에 적습니다.
4.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주제, 궁금한 점을 1개 이상 제출합니다.
5.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6. 이야기된 내용을 정리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문학을 나눠요

온라인 모임으로 문학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자.

감동 나누기

생각 나누기

창작 나누기

문학 작품을 통해 얻은 감동을 공유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감상한 후 큰 감동을 받았거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작품을 떠올려 본다.
2. 작품의 내용과 형식, 맥락 등을 고려하며 다시 읽어 본다.
3. 시나 수필은 전문을 적고, 소설은 전체 줄거리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적는다.
4. 작품에 대한 감상,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친구와 그 까닭을 이야기하며 감상을 나눈다.

1 삶에 가치 있는 경험을 준 작품을 골라 모임원들에게 소개해 보자.

예시

가 보지 못한 길 | 프로스트 / 천승걸 옮김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텅 빈 속으로 감돌아 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른 작품

2 1에서 읽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정리해 보자.

예시

이 작품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선택에 관해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화자는 남들이 이미 많이 가 본 안정된 길 대신에 자신이 개척하며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엔 화자는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이 학교를 선택한 나의 결정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게 되었을 때,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보자.”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바꿔 놓은 이 작품, 저에게는 운명 같은 작품입니다.

3 모임원 중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친구를 정하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추천하고 싶은 친구

추천하는 까닭

 **작품에 관한 생각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보자.** 

1. 모임원은 각자 논쟁의 요소가 있는 문학 작품을 제안하고, 그중에서 함께 읽고 토론할 작품을 선정한다.
2. 선정된 문학 작품을 읽고 각자 생각한 쟁점을 공유한 후, 그중에서 토론할 쟁점을 정한다.
3. 모임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눈 후, 각자의 편에서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다.
4.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토론을 한다. 이때, 토론은 온라인 대화,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할 수 있다.
5. 토론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1 모임원들과 감상을 나눌 작품을 선정한 후, 중요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 등을 메모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예시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 김초엽

앞부분 줄거리 >> 가운은 현재 블랙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떠나는 제2기 터널 우주 비행사로 선정되어, 온몸을 사이보그 처럼 만드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가운이 우주 비행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친이모처럼 여겼던 제1기 터널 우주 비행사 재경 때문이었다. 그런데 가운은 발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재경이 사실 터널로 가는 우주 비행을 며칠 앞두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심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이보그화 된 육체를 이용한 것이다. 재경은 동양인 비혼모 여성으로, 많은 청소년에게 누구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인물이었기에 가운은 큰 충격을 받는다. 한편, 터널 비행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가운에게 재경의 딸인 서희가 찾아온다.

“나,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서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고, 가운은 웃었다.

“그걸 지금 나한테 말해 주면, 나도 이모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해 봤어?”

농담이었지만 서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럼 들어 보자.”

가운은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대단한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었다.

“재경 이모가 왜 그랬는데?”

“엄마가 한 번 술에 취해서 나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거든. 그냥 힘들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와 증오를 동시에 보내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투덜거리는 얘기였는데, 평소에도 잔뜩 듣던 이야기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 주면서 무시했지, 근데 그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는데, 그렇지?’라고.”

“뭘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정작 중요한 일은 안 해 놓고.”

서희가 우주 비행을 앞둔 가운에게 굳이 재경이 잠적한 동기를 말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게 말했지만 가운은 실제 재경 이모가 정말로 많은 것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재경은 분명히 우주 영웅이었다. 재경은 세계를 돌아다녔고, 여러 번의 우주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재경은 수많은 소녀들의 삶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최후에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재경이 바꾸었던 술한 삶의 경로들이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다. 가운이 그 증거 중 하나였다. 가운은 한때 재경을 보며 우주의 꿈을 꾸던 소녀였고, 이제 재경 다음에 온 사람이 되었다.

서희가 또 하나 떠오른 듯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러고 보면, 한번은 우주의 저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많은 돈을 써 가면서 굳이 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똑같은 우주일 것 같은데, 이랬다니까.”

“그게 그 돈으로 사이보그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이 할 말이야?”

“내 말이.”

가운은 고개를 내저었다.

“재경 이모는 애초에 터널을 넘을 생각이 없었나 봐.”

서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맞아. 부정하고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네 추정이 맞는 것 같아. 처음부터 할 만큼만 하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갈 생각이었던 거지. 혼자서 심해를 보려고 한 거야. 이기적이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어쨌든 그게 가장 해답에 근접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 터널을 통과할 최종 준비를 마친 가운은 터널을 넘기 위해 우주로 떠난다.

양자 교신기 너머에서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내부 상황을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운은 손을 뻗어서 여전히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양자 교신기를 들었다.

“통과했어요.”

진입 성공을 알리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두 번의 램프 점등 후에 교신기 너머에서 노이즈가 섞인 환호성이 들려왔다.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캡슐을 조망 모드로 전환하자 격벽이 걷히고 캡슐 끝 구역의 조망대가 드러났다. 검은 육각 프레임 너머로 새로운 우주가 보였다. 터널 너머의 우주였다. 가운은 휘청거리며 벽면의 손잡이를 잡았다. 벽을 밀며 조망대로 다가갔다.

별들과 뿌옇게 흩어진 성운이 보였다. 더 많은 별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저쪽 우주와 별다를 바도 없었다.

재경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니까. 재경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목숨을 걸고 올 만큼 대단한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운은 이 우주에 와야만 했다. 이 우주를 보고 싶었다. 가운은 조망대에 서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천천히 우주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젠가 자신의 우주 영웅을 다시 만난다면, 그에게 우주 저편의 풍경이 꽤 멋졌다고 말해 줄 것이다.

우주가 아닌 심해로 간 재경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운은 재경과 달리 우주로 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